2025년 10월 13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트럼프 리스크 재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

한국 증시는 1) 미중 무역 갈등 확대 여부, 2) 연방정부 셧다운 해소 여부, 2) 파월 의장 등 연준 인사 발언, 4)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ASML, TSMC 실적, 5)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등에 영향 받을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3,520~3,660pt).

한동안 주식시장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을 위험 요인 상 후순위로 취급해온 측면이 있었음. 이로 인해 이번 트럼프의 돌발 발언 충격이 체감상으로 더 크게 다가왔던 것으로 판단. 그러나 "미중 갈등 격화 -〉 대규모 맞불 관세 -〉 4월 폭락장 재연"의 경로를 답습하진 않을 전망. 당장 양국간 시행한 수출 통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도, 11월 1일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12월 1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시행 전까지 협상 여지가 존재. 2018~19년 무역분쟁, 24년 관세 전쟁을 통해 "미중 갈등 -〉 협상 -〉 재 갈등 -〉 재 협상"을 수차례 목도하는 과정에서 내성도 생겼기에, 이번 사태의 주가 충격은 장기화되지 않을 전망.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Market/ESG 이성훈
sh1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10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장기 추석 연휴로 월~목까지 휴장이었던 가운데 연휴 기간 오픈AI-AMD 간 파트너십 체결 등 AI발 호재 속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자금이 유입된 결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하며 양 지수는 상승 마감(KOSPI +1.73%, KOSDAQ +0.61%)

지난주 추석 연휴로 월~목까지 국내 증시 휴장 기간 동안 미 증시는 AI 주를 중심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 시현. 엔비디아,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에 이어 AMD와의 오픈 AI 파트너십 체결 소식은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훈풍으로 작용. 물론, 주 후반 오라클의 수익성 논란 속 AI 산업 버블 논란이 확산된 점이 일부 노이즈로 작용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주력 AI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미 증시의 상승 랠리는 주 후반까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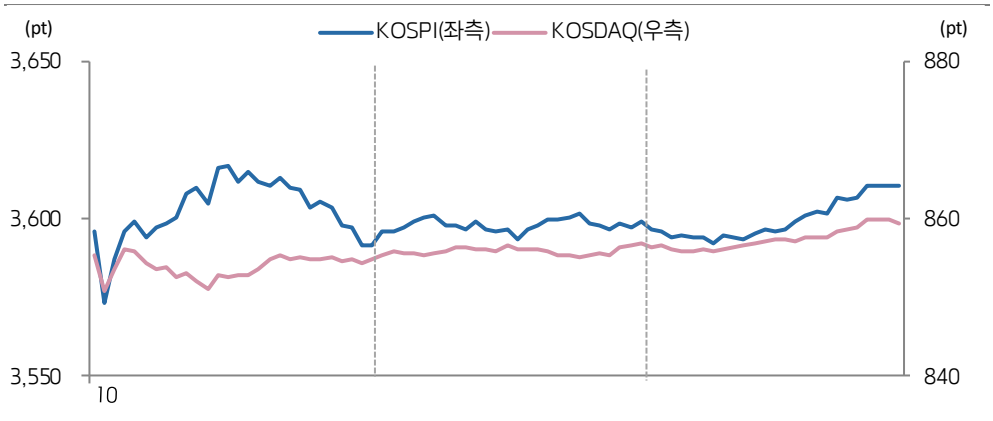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속되며 9월 비농업 고용 발표가 지연되었고, 15일 예정된 9월 CPI 발표 지연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단기적인 불확실성 국면은 이어지는 흐름. 그럼에도 과거 수차례 경험 속 연방 정부 셧다운 이벤트가 증시의 추세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 속에 연방 정부 셧다운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되었음. 다만,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히며 미중 무역분쟁 우려 불거지며 미 증시는 급락세 연출.

이러한 가운데 10일(금)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1,420원 돌파에 따른 부담감에도 외국인의 1.5조원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특히, 연휴 기간 오픈AI-AMD 간 파트너십 체결 등 AI발 호재를 반영하며 대형 반도체, 원전 등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급등.

업종별로 기계/장비(+9.65%), 전기/전자(+4.78%), IT 서비스(+3.02%), 제조(+2.63%), KOSPI(+1.73%)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운송장비/부품(-2.18%), 운송/창고(-1.77%), 금속(-1.22%), 섬유/의류(-1.12%), 통신(-0.98%)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1조 592억원)은 제조(+10,833억원), KOSPI(+10,592억원), 전기/전자(+8,515억원), 기계/장비(+4,034억원)순으로 순매수, 기관(-5,936억원) 기계/장비(+1,517억원), 증권(+154억원), 부동산(+48억원), 의료/정밀기기(+18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10월 13일	월	중국	무역수지	10월	$98.96b	$102.33b
		휴일	**일본 (체육의 날)**			
10월 14일	화	EU	ZEW 서베이 예상	10월	-	26.1
		독일	ZEW 서베이 예상	10월	-	37.3
		미국	NFIB 소기업 낙관지수	9월	-	100.8
		발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보우먼 미연준이사**			
		실적	**삼성전자 (잠정)**			
			JP 모건체이스,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블랙록			
10월 15일	수	중국	**CPI (YoY)**	9월	-0.2%	-0.4%
			PPI (YoY)	9월	-2.3%	-2.9%
		EU	산업생산 (MoM)	8월	-	0.3%
		미국	**CPI (YoY)**	9월	3.1%	2.9%
			근원 CPI (YoY)	9월	3.1%	3.1%
		발언	**파월 미연준의장, 월러 미연준이사, 보스틴 연은 총재**			
		실적	**ASML,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10월 16일	목	일본	핵심기계수주 (YoY)	8월	4.9%	4.9%
		미국	**PPI (YoY)**	9월	-	2.6%
			근원 PPI (YoY)	9월	-	2.8%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10월	7.0	23.2
			소매판매 (MoM)	9월	0.4%	0.6%
			NAHB 주택시장지수	10월	-	32
		실적	**TSMC**			
		발언	**미란·◌월러 미연준이사, 바 미연준부의장**			
		공개	**베이지북 (오전 3시)**			
10월 17일	금	한국	실업률	9월	-	2.6%
		EU	CPI 최종 (YoY)	9월	2.2%	2.0%
		미국	주택착공건수 (MoM)	9월	0.6%	-8.5%
			산업생산 (MoM)	9월	0.0%	0.1%
			설비가동률	9월	77.3%	77.4%
		실적	**아메리칸익스프레스**			
		파생	**미국 옵션만기일**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중 무역 갈등 확대 여부, 2) 연방정부 셧다운 해소 여부, 3) 파월 의장 등 연준 인사 발언, 4)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ASML, TSMC 등 미국 금융 및 반도체주 실적, 5)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등에 영향 받을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3,520~3,660pt).

10일(금) 미국 증시는 신고가 경신에 따른 레벨 부담 누적 속 트럼프의 대중 관세 인상 및 미중 정상회담 취소 발언 여파로 엔비디아(-4.9%), 애플(-3.5%), 테슬라(-5.1%) 등 M7 포함 나스닥을 중심으로 폭락세를 연출(다우 -1.9%, S&P500 -2.7%, 나스닥 -3.6%).

이날 장중 트럼프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9일 발표)를 비판하면서, 대규모 대중 관세 인상 예고와 함께 10월 말 APEC 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이어 장 마감 후 11월 1일부터 대중 관세를 기존 33%에서 100%로 인상할 것이며,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이 충격으로 주도주인 AI 반도체주는 폭락했으며(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6.3%),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역대급 청산사태(약 200억달러 청산, 코로나와 FTX 파산 당시 규모를 상회)가 벌어지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급격히 냉각됐던 실정.

사실 한동안 주식시장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을 위험 요인 상 후순위로 취급해온 측면이 있었음. 이로 인해 트럼프의 돌발 발언 충격이 체감상으로 더 크게 다가왔던 것으로 판단. 이번 주에도 시장참여자들은 관련 뉴스플로우를 주시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올해 4월 상호관세 발 폭락장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가에 반영하려 들 수 있음.

그러나 "미중 갈등 격화 -> 대규모 맞불 관세 -> 4월 폭락장 재연"의 경로를 답습하진 않을 전망. 금요일 장중 트럼프가 APEC 회의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장 마감 후 발언에서는 "APEC 회의 자체는 참여할 것이며, 시진핑과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 또 한국시간 13일 새벽 트럼프가 중국과 잘 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 모두 불황에 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금요일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결국 당장에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도, 11월 1일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12월 1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시행 전까지 협상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

2018~19년 무역분쟁, 24년 관세 전쟁을 통해 "미중 갈등 -> 협상 -> 재 갈등 -> 재 협상"을 수차례 목도하는 과정에서 내성도 생겼기에, 이번 사태의 주가 충격은 장기화되지 않을 전망. 월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폭락분을 반영하면서 하락세를 보일 수 있겠으나, 매도에 동참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조금 전 트럼프의 유화적 발언으로 현재(오전 7시 10분 기준) 나스닥 선물이 1% 넘게 반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볼 만.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도 10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임시예산안을 상정시켜도 오바마케어 영구연장 등을 놓고 의회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베팅사이트인 Poly Market에 의하면, 셧다운 해소 시점이 10월 15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확률이 90%대에 육박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도 셧다운 장기에 대비 중, 셧다운으로 고용 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보니, 주중 순차적으로 발언이 예정된 파월 의장 등 주요 연준 인사들도 10월 FOMC 포함 향후 정책 경로를 놓고 별 다른 신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과거 20여차례 셧다운 학습효과를 체득해왔으며, 백악관 예산처에서 노동

통계국(BLS)의 직원 복귀를 승인하면서 9월 CPI가 10월 FOMC 전인 10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도 안도 요인.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 셧다운 장기화 우려 등 정치,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지만, 금주부터 시작되는 3분기 실적시즌의 영향력이 상기 불확실성을 상쇄해 나갈 것으로 판단.

미국에서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음. 셧다운으로 9월 이후 미국 경기 향방을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금융주들의 순이자 마진, 대손 충당금 설정 규모,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대용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또 미국 AI 버블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므로, ASML, TSMC 등 반도체주들의 3분기 실적을 통해 AI 수요 호조 및 수익성 개선 전망을 유지해 나갈 지가 관건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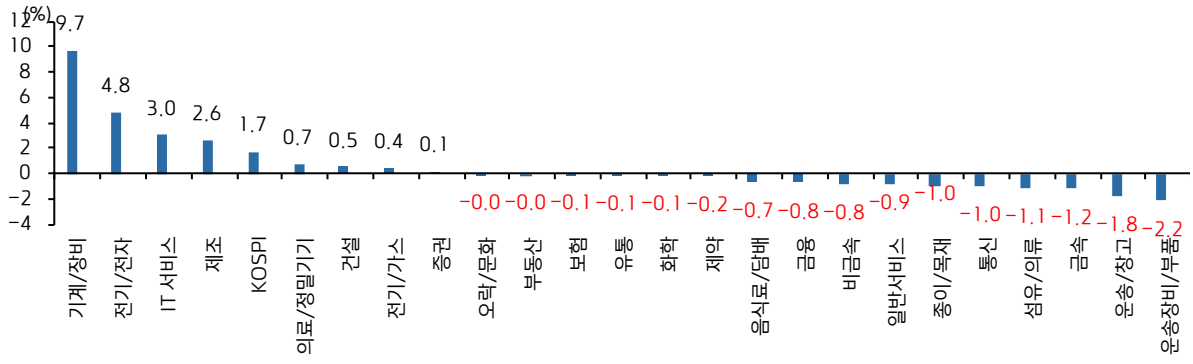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이 메인 이벤트이며, 파운드리 적자 해소 가능성, 메모리 가격 상승 수혜 등 DS사업부문 개선 여부가 관전 포인트. 최근 주가 급등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시장에서는 이미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선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 이는 잠정실적 발표 후 단기 재료 소멸 인식으로 반도체 뿐만 아니라 코스피 전반에 걸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수 가능성을 내포. 다만, 메모리 업황 본격 턴어라운드 전망은 큰 틀에서 여전히 유효한 만큼, 주중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주가 및 수급 변동성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3,610.60	1.7	1.7	8.9	50.5
대형주	3,696.45	2.1	2.1	10.9	54.7
중형주	3,529.04	-0.6	-0.6	-1.9	32.8
소형주	2,445.83	-0.5	-0.5	-1.9	16.8
코스피 200	506.97	2.8	2.8	12.7	59.5
코스닥	859.49	0.6	0.6	3.2	26.7
대형주	2,049.59	0.2	0.2	2.9	27.0
중형주	811.29	1.9	1.9	6.4	37.6
소형주	2,595.68	-0.1	-0.1	0.0	16.5
코스닥 150	1,431.45	0.0	0.0	2.4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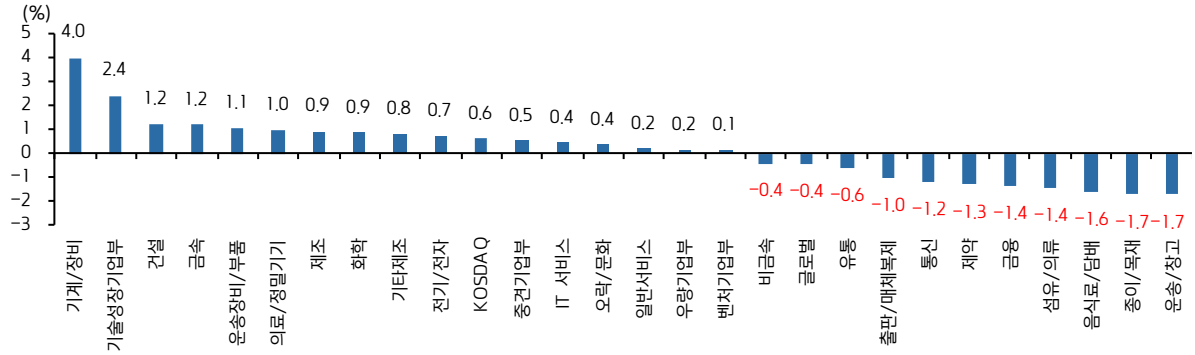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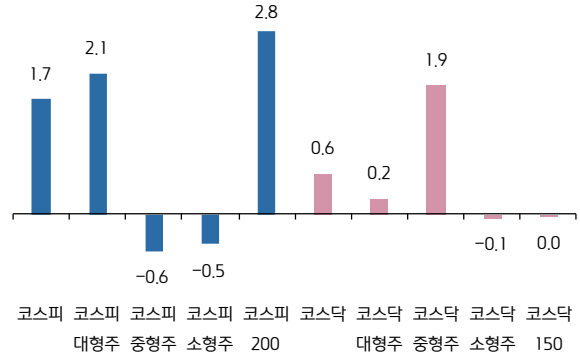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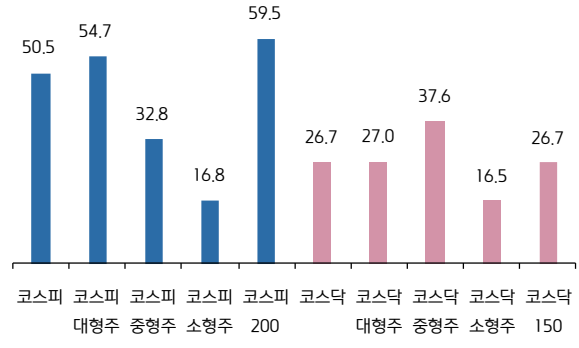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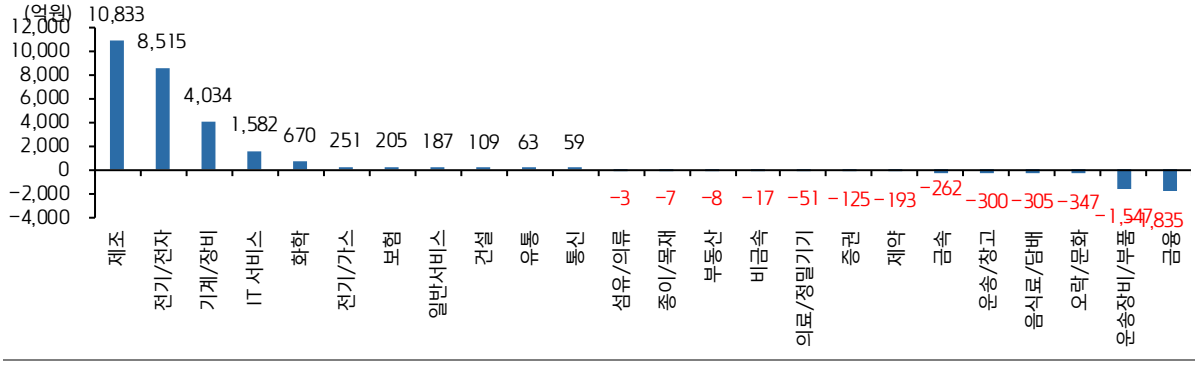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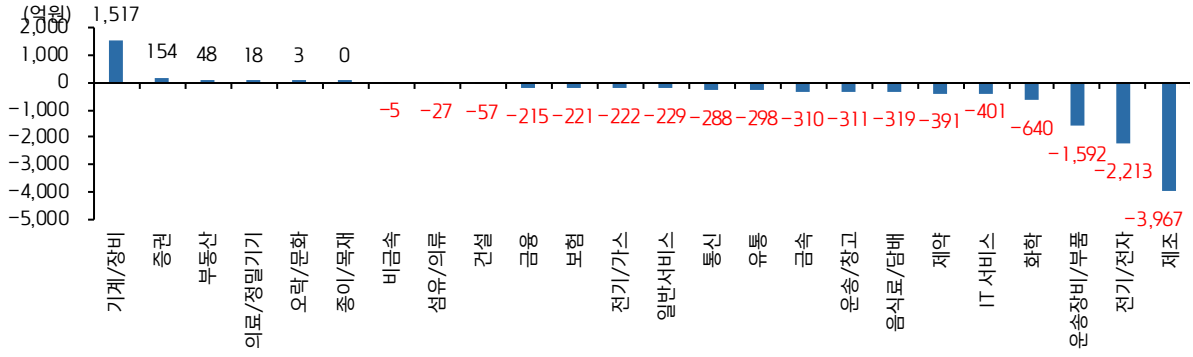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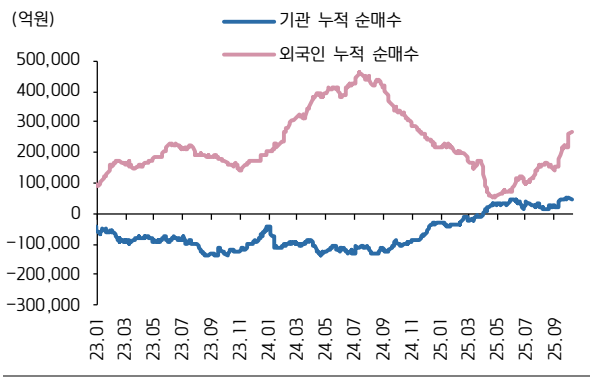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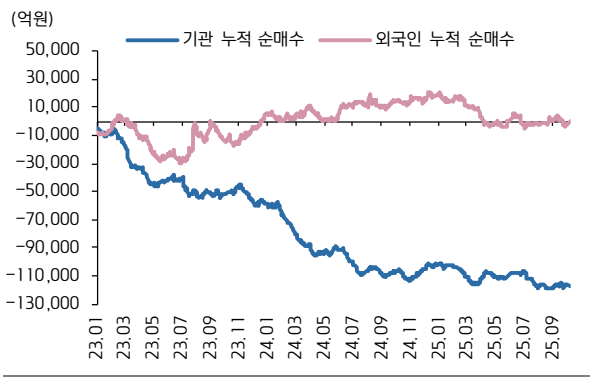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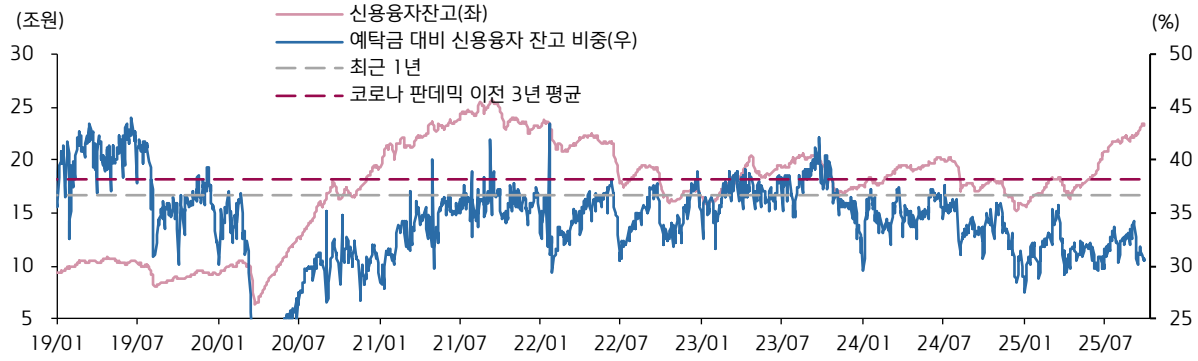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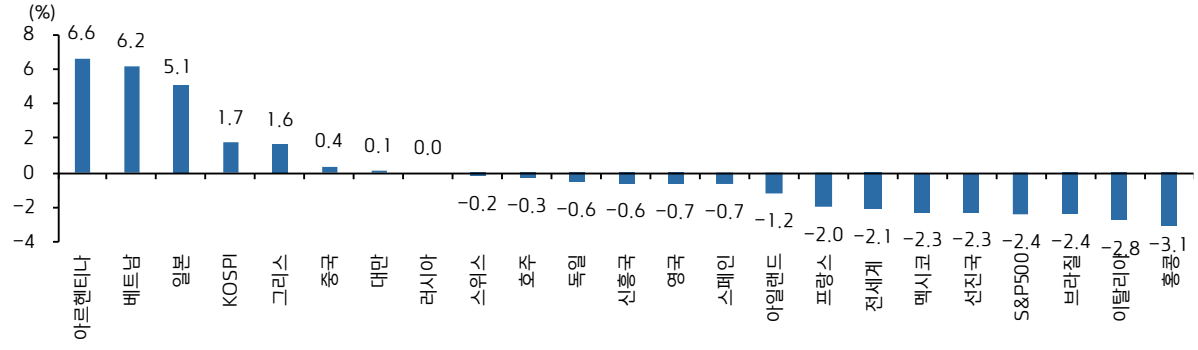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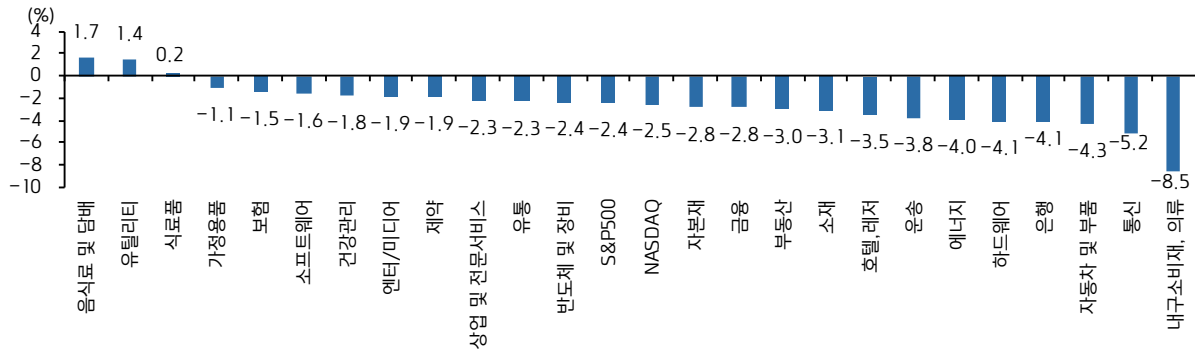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